



남원우체국, 독거어르신·저소득 가구 생필품 전달

남원우체국(국장 백만숙) 행복나눔봉사단은 지난 11월 2일과 7일, 남원시 산간지역에 위치한 저소득가구와 아동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백만숙 국장과 집배원 등은 2일에는 산간지역에 있는 독거어르신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7일에는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그동안 남원우체국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백만숙 국장은 "앞으로도 우체국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남원우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음 돌레, '돌레를 말한다' 성과발표회 가져

사회적기업인 사단법인 돌레(이사장 안수용)는 지난 10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음시예술회관에서 시니어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드루와예술학당' 사업의 한해를 정리하는 '2022 돌레를 말한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난타(강사 박현숙)의 흥겨운 리듬을 시작으로 미디어댄의 영상제작(강사 백정아, 안학순, 임지영) 작품 감상과 한국무용(강사 권순덕), 에어로빅(강사 이선민), 라인댄스(강사 안복순)팀이 건강한 활력을 선사했다. 또 아름다움 화음이 돋보였던 춤창단(지휘자 차주중, 반주 이수경)과 박정주 강사의 신나는 노래교실로 또 한번 어깨를 들썩이며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 색소폰(이영백 회원 외)과 기타(이희연 회원 외)의 회원들이 한해 동안의 솜씨를 아낌없이 자랑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안수용 이사장은 "드루와예술학당은 정음시니어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끌어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며 "인생의 후반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어갈 수 있도록 청춘을 노래하자"며 참가한 시니어 청춘들을 격려했다.

한편 '드루와예술학당'은 문화복지조성사업단이 정음시니어서비스투자사업단과 함께 하는 협력사업으로 80대 이상 실버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체초 라인댄스, 장구(한타), 색소폰, 노래교실, 시민합창단, 한국무용, 미디어교육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해 함께 할 청춘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63-533-2580)

/정음=김대환 기자



임실군, '오수시장 장보러가세' 문화행사 개최

'오수시장 장보러가세' 문화행사가 지난 10일 오수시장 상인회교육장 특별무대에서 2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임실군이 주최하고 오수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한 이번 문화행사는 한국음악협회 임실지부의 흥겨운 음악 공연을 시작으로 초대가수 공연, 즉석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의 행사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시장을 찾은 고객과 시장 상인들이 하나가 되는 흥겨운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실군수 표창래도 수어했다. 흥기흥 오수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최상의 상품과 친절로 계속해서 찾고 싶은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함께 오수 제2농공단지가 완공되고 세계 명경 테마랜드와 캠핑장 등을 건립하면 많은 반려인과 오수를 찾는 관광객으로 오수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고원에서 개마고원으로

민주 진안군협의회, 평화의 길 조성 기념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회장 최경호)가 11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운산인공습지 산책로 일부 구간을 평화의 길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춘성 진안군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및 시군 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틀로는 '진안고원에서 개마고원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표지석 제막과 평화의 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해 공유했다.

최경호 회장은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혼잡하고 위기가 깊어지지만, 평화의 길 조성을 계기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진춘성 군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평화의 길을 걸으며 일상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화의 길 조성된 운산인공습지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이자 용담호의 맑은 물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가래떡 데이 행사 개최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와 농신보 남원권역보존센터(센터장 남승수)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데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임직원 20명이 참여해 은행 방문 고객 및 인근지역 주민 취약계층 등에 가래떡을 나누어 주며 농업인의 날과 가래떡 데이를 홍보하고 우리쌀 소비확대 동참을 호소했다.

권오정 지부장은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11월 11일에는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을 선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강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 2006년부터 쌀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래떡 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 남원시지부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김왕규 교장, 전북교육대상 '대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김왕규 교장이 '제26회 전북교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대상은 전라북도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하는데 의미가 크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김왕규 교장은 전주교대 윤리교육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월성초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전북교육청 미래교과제 장학관,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군산신흥초 교장 등을 거쳐 현재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이에 따르면 김왕규 교장은 선도적인 수업 모델 개발·적용 확산, 예술·체육교육 실현, 한·중 학생들의 문화교



류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또 에듀테크 미래교육 교실 수업 공유를 통한 창의적인 공교육 혁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왕규 교장은 "전북교육대상 대상 수상은 너무 큰 영광"이라며 "남은 재직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혁신하고, 나아가 지역과 더불어 초중교육이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준 총장은 "이번 수상은 지성과 감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전주교대 가족으로서 깊은 인연이 있는 김왕규 교장 선생님의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전주그랜드호텔5층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월랑어린이집,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월랑어린이집(원장 이정희)은 1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97만 5000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정희 원장은 "어려운 바자회 수익금으로 진안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장학금 후원과 함께 진안의 어린이들에게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들이 직접 전달식에 참여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니 더욱 의미가 있다. 진안의 더 나은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월랑어린이집은 1992년 개원하여 20년째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로 5개 학급(유아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김경남씨 전북도 효도대상 수상

진안군 주천면에 거주하는 김경남씨(59세)가 지난 10일 개최된 제10회 전라북도 효도대상 시상식에서 효행자로 선정됐다.

10회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효사랑실천전북협의회와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등이 후원했다.

진안군 효도대상을 수상한 김경남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98세)를 15년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주천면 자원봉사단장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앞장서는 등 주변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경남 씨는 "자식으로써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나가며, 이웃과 어른을 공경하며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산소방서, 겨울철 캠핑장 안전관리 현장행정

완산소방서는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로부터의 지역민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섰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일일캠핑장을 방문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캠핑장 안전관리 현장행정 지도'를 지난 11일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 지도는 겨울철 여가활동 증가와 캠핑생활 대중화에 따라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에게 안전관리를 당부해 야외활동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마련됐다.

이날 캠핑장 시설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캠핑장 시설 확인과 텐트 내 안전장비를 점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캠핑장 안전사고 위험요소 확인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확인 △버블텐트, 글램핑 텐트 내 안전장비 확인 △캠핑장 화로대 인근 화원 방지 금지 등 겨울철 화재예방 당부 등이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캠핑장은 난방기구 등 화기 취급이 많아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캠핑장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교수봉사단, 버스기사 위한 간식 나눔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 교수봉사단인 '들꽃'은 11일 한식조리학과와 함께 시내버스 기사를 위한 '사랑의 간식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전주대의 아침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배움의 터전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버스 기사의 행복 운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손지훈)는 버스 기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차가마찬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식조리학과에 부탁해 제과 선물세트를 준비한 것.

전주대에 들어오는 4000번, 5001번, 5002번 버스 기사는 총 60명, 80세트의 직접 구운 마들렌과 휘낭시에, 음료를 준비해 버스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 기사들에게 나누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식조리학과와 제과·제빵 실습수업을 통해 재학생들이 직접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직무체험 실시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30여 명은 지난 10일 완주경찰서를 찾아 직무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무체험은 완주경찰서 소개와 박종삼 서장 특강, 동문인 한해린(경찰행정학과 15학번) 순경과의 대화 등 미래 경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전 지식 습득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류관(경찰행정학과 2년) 학생은 "전공수업으로만 듣던 경찰의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며 "꼭 경찰관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상영 경찰행정학과장은 "경찰의 역할과 비전을 학생들에게 직접 제시하기 위해 이날 직무체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